

합당한 교회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

2/5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편 2:1-2, 3

1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2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딤편 1:18

18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를 두고 했던
예언에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삼상 12:23

23 물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골 1:9

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롬 1:9

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느 1:11a

11 오, 주님!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경외하기를 즐거하는 이 종의 기도와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종을 잘되게 해 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자비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
맡은 시종이었다.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인도하는
이들, 곧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앞장서서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기도의 사역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유한다(딤편 2:1).
이러한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교회생활의
긍정적인 방면에 관하여 바울이 첫 번째로 한
말이다. 디모데는 앞장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가련하다. ...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딤편 2:1)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5-2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어떤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이 좋은 나쁜 기도해야 한다. 그 상황에
대해 토론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한담하거나
비평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어떤 성도나 장로에 대해 무언가를
듣는다면 기도해야 한다. ...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를 훈련한다면, 교회는 살아 있고 높아질
것이다. 만일 우리 중 몇몇이 오늘날의 디모데가
되어 기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이 따를 것이다. 이것은 양 떼가 앞장서는
소수의 양들을 따르는 것으로 예시될 수 있다.

너무 많이 말하는 대신에, 심지어 너무 많이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약한 성도나 뒤로 물러난 성도에 대해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그를 비평하지도 말라. 더욱이 즉시 그를
방문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방문해야 할지의 여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 ... 어느 것도 주재님께
행하지 말라.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 금
뒤로 물러난 그 성도를 방문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그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성도를 방문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주재님을 수 있다. ...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방문하도록
인도하신다면, 그 방문은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자격이 있다고 주재님께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만일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면,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장로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기도이다. 기도가 없이는 결정하지
말라. 먼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를 비평하거나 칭찬하지 말라.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는 가볍거나 피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철저해야 한다. 오직 어떤 일에 대하여 철저히

기도한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장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실행한다면, 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생활은 높아지고 합당해질 것이다. ... 만일 우리가 디모데전서 2 장 1 절부터 7 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영을 만진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에서 인도하는 이들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의 부담을 감지할 것이다. 이 절들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분명한 그림을 보여 주었고, 어떻게 그것이 다른 가르침들과 대비되는 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대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나를 그분의 경륜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그대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엄숙히 명령했습니다. 이제 내 영 깊은 곳에 있는 부담은 그대에게 기도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가르침이 기도 앞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기도가 반드시 첫 번째이어야 하고, 가르침은 두 번째이어야 합니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6-2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4

2/6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4, 8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8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창 18:23-26

23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24 혹시 그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의인 오십 명을 위하여 그곳을 남겨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25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6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성 전체를 남겨 두겠다.”

시 134:2

2 성소에서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히 10:22

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벧전 3:12a

12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며,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대적하신다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 장 1 절에서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언급한다. 기도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한다. 간구는 특별한 것으로서 특정한 필요를 위한 것이다. ‘중보기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 ... 만일 어떤 교회의 상황이 좋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 교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어떤 교회나 사람을 칭송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의 영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매우 부담이 있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했다. 나는 오직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만 합당한 교회생활이 존재할 수 있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싶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또한 나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 최근에 나의 활동은, 내가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동안 제한받았다. 나는 어떤 필요에 대하여 들을 때, 그것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마 주님은 나에게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 나를 제한하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생활을 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공과를 배우기 바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비교 딤편 2:4)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 따라서 거룩한 손은 거룩한 생활, 곧 경건하며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상징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강화한다. 손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생활도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유지할 힘이 없게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없다.

만일 우리가 비판적인 방식으로 장로들과 성도들을 지켜본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든다면 우리의 기도는 강화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2 장 8 절에서 바울은 또한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죽인다. 화는 감정에 속한 것이고, 논쟁은 생각에 속한 것이다.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통제 아래서 조절되어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논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다툼하는 논쟁’을 의미한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논쟁이 아니라 말다툼이 가득한 논쟁이다.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피해야 한다.

말다툼하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거룩한 손을 들라는 그의 권면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자신의 눈을 감고 우리의 손을 든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눈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며 그들의 상태를 판단한다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우리의 손을 들고 말다툼하는

논쟁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체험을 통하여 나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만일 내가 합당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나의 기도 생활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화내는 것은 언제나 일정 기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파괴한다. 만일 한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화를 낸다면, 그는 며칠 동안 합당하게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엄격히 조절해야 한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8-30 쪽, 메시지 4, 35-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38 권, 일반 메시지(2), 56 장

2/7 수요일

아침의 누림

출 28:29-30

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판결 가슴받이를 가슴에 달아, 여호와와 그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라.

30 너는 판결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뭇을 넣어 두어, 아론이 여호와 앞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판결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히 1:1-2a

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요 8:12

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눅 1:78-79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히 12:2a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빌 1:6

6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가슴받이의 열두 보석에 있는 이름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스물두 자 중 열여덟 자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머지 네 자는 둠뭇에 있었다. 히브리어 단어 둠뭇은 ‘온전하게 하는 것’, 또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슴받이 위에 둠뭇이 추가로 더해지면, 히브리어 알파벳 스물두 자 모두를 찾을 수 있었다. 타자기 키 위에 있는 스물여섯 자의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단어나 구나 문장이나 단락을 만들 수 있듯이, 가슴받이와 둠뭍 위에 있는 스물두 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 낼 수 있었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6, 1436-143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림은 가슴받이 안에, 곧 열두 보석 아래에 넣은 발광체였다.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들'이라는 뜻이다. ... 우림에는 기름을 담아 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기름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된 불은 제단에서 온 것이었다. ... 우림에는 열두 발광체가 있어서 각 발광체가 가슴받이에 있는 열두 개의 보석에 빛을 비추었다. 그럴 때 투명한 보석들이 빛을 낼 수 있었다.

우림과 둠뭍이 가슴받이에 더해질 때, 이것으로 인해 가슴받이는 판결 가슴받이가 되었다. ...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의 움직임에 관한 인도가 필요할 때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림과 둠뭍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대제사장의 인도를 따랐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림과 둠뭍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림과 둠뭍은 둘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 가슴받이는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가슴받이에 더해진 우림과 둠뭍은 교회에 더해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가슴받이에 있는 열두 보석은 영적인 알파벳이신 그리스도로 새겨진 믿는 이들, 곧 교회의 구성 요소들인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분은 첫 글자이시자 마지막 글자이시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어들과 문장들과 단락들과 장들과 책들을 조합하는 데 사용되는 알파벳이심을 의미한다. 가슴받이에

있는 열두 보석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하늘에 속한 알파벳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둠뭍은 ... 글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이 새겨지셨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우리에게는 어떤 글자들, 곧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여전히 빠져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빠진 글자들을 지니신,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가슴받이에 더해진 우림은 열두 보석이 빛을 내게 하였다. ... 여기서의 요점은 그리스도가 새겨진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글자들이 새겨진 모든 보석들이 있더라도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둠뭍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슴받이인 교회에 더해지실 필요가 있다.

종종 교회 안의 인도하는 이들은 그들의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해 왔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많이 그들 안에 새겨지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 위에 새겨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더해지시는 빛이신 그리스도, 우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체험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부족하며, 그 부족은 오직 그분께서 채우실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를 빠짐없이 다 체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 그분은 다함이 없으시다. ...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더해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없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몫이 더해질 때, 우리는 온전함과 빛 비춤을 얻게 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6, 1437 쪽, 메시지 128, 1454-145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3, 126-129

2/8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8:4, 14, 16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계 1:10

10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 4:2

2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계 21:10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신약의 신정(神政)에서 우림과 둠뫼는 연합된 영, 즉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으로 대체된다(롬 1:9, 8:16, 요 3:6, 4:24, 고전 6:17).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훈련과 실행, 23 장, 269 쪽)

가슴받이는 판결 가슴받이라고 불렸다(출 28:15). ... 여기에서 판결은 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와 무엇이 공정하고 불공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이 판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 가슴받이는 사실 인도하는 가슴받이다. ...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육체에 속한 것들과 육체에 둔 생각을 심판해야 한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3, 14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가슴받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건축, 곧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건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건축이 없다면, 우리에게 가슴받이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빛과 온전함이신 그리스도께서 더해지실 필요가 있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신성한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성도들이 함께 건축되어야 할 진정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축이 없다면 가슴받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에게 가슴받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뜻만을 알 뿐이다. ... 로마서 12 장에 따르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몸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 주님의 판결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가슴받이를 지니고 있어야 했는데, 이 가슴받이는 바로 건축된 주님의 백성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서신들은 바울의 마음 위에 놓인 가슴받이, 곧 함께 짜인 모든 믿는 이들을 사용하여 쓰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매우 염려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의 마음 위에 짜여 있었다. 바울에게는 그의 빛과 온전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는 또한 신선하고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 바로 이러한 빛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글자로서 읽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두 서신을 쓸 글의 재료를 얻었다.

사도들은 서신을 쓸 때 놀라운 개념이나 사상을 얻으려고 구약을 연구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먼저, 사도들은 교회생활 안에 건축되었고,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의 가슴 위에

있는 가슴받이를 구성하는 재료들로 사용되었다. 사도들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든 교회들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았다. 사도들에게는 교회생활이 있었고, 그들의 빛과 온전함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사도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신선한 빛을 받아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읽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이 서신을 쓰는 데 필요한 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주님의 뜻과 판결을 알려면, 우리에게 구속과 영양 공급과 빛 비춤과 건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가슴받이가 있을 것이다. 가슴받이는 건축된 몸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가슴받이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 것이며, 온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판결에 따라 전진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제사장 직분, 18 장, 851-8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훈련과 실행, 23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제사장 직분, 18 장

2/9 금요일**아침의 수련****고전 1:9**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엡 5:8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마 5:14

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빌 2:15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요 1:4-5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 8:12

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12:46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뭉이 더해진 가슴받이를 오늘날에 적용할 때,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품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얻기 위해 성도들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인도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아야 하고 성도들을 읽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뭉이 있는 가슴받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빛을 내고 있는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슴받이의 열두 보석은 우림의 빛 비춤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단어가 새겨진 한 보석이 어두워지곤 했다. 이렇게 특정한 보석이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 하나님은 갑자기 어두워진 보석을 통하여 말씀하셨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9, 146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의 서신서들과 주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일곱 서신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다. 이 서신들은 교회들 안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 기록되었다.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를 예로 들어 보자. ...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의 부정적인 상황을 읽어 낸 것에 따라 고린도전서를 썼다. 그러나 그가 쓴 서신서가 부정적인 것들에 근거할지라도,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것들, 곧 그리스도의 풍성을 교회에게 공급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드러내실 길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지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그러나 모든 등이 빛을 내고 있을 때 어두워진 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슴받이를 통하여 말씀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예시이다. 어떤 보석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다.

어둠이 알려지려면 반드시 먼저 빛 비춤이 있어야 한다. ... 모든 등이 빛을 내고 있을 때 어떤 등이 어두워지면 즉시 그것이 눈에 띈다. 그 어두워진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이다. 어떤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쉽게 발견된다면 그 교회는 정상적이다. ... 어둠이 지배할 때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빛 비춤 아래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하나님은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상황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읽어 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지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가슴받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도는 항상 판결을 포함했다. ...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해 비롯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은 곧 판결이다.

바울이 받은 빛 비춤 아래서 어둠이 드러났다. 바울은 그의 몇몇 서신서들을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둠에 따라, 즉 그들의 부정적인 상태에 따라 기록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존재했던 어떤 어두운 부분들, 곧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 주는 글자가 되는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판결의 책임 고린도전후서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신서에는 그 안에 담긴 모든 판결에 더해 많은 긍정적인 것들, 즉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공급된 그리스도의 풍성도 담겨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부정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그분의 백성을 위한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반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9, 1462-14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개정 2 판, 11 장;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살전 5:17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2/10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행 6:4
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행 1:14
14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빌 2:13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 5:3, 8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 관하여 ...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과 기꺼이 서약을 맺어야 하고 심지어 주님께 서원해야 한다. 만일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이러한 서약을 맺는다면, 회복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주님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기름바름을 누릴 것이다. 온종일 그들은 주님의 얼굴의 미소를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인격이 그들의 체험과 누림이 될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6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가 살아 있고 신선하고 풍성한지의 여부는 우리가 계속 그 영으로 채워지는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 영으로 계속 채워지려면 자원하고, 비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것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자신감과 지식과 방법과 능력과 힘이 있으면, 우리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뿐 아니라 유죄판결 하신다. 하나님은 옛사람이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죄판결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볼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것과 비워지는 것과 기도가 부족하다면,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 우리는 “주님, 당신의 긍휼로 저는 자원합니다. 당신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비웁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당신께 제 자신을 열어 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체험한 어떤 것도 붙잡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선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신성한 지혜와 이해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 여러분은 성도들을 신성한 본성으로 접촉하는 법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법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판결로 그들을 세우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생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 줄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성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거처로 세우는 것이다. ... 인도 직분이 풍성해지려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것과 비워지는 것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장로들은 함께 모일 때 단지 어떤 일들에 관해 토론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것을 교통이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그것은 그저 토론에 불과하다. 장로들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함으로 그들의 생각, 즉 그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 기도하여 여러분 자신을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영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 안에 있게 된다. ... 심지어 목양할 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성도들을 방문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원래 하려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된다. 지속적으로 기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영은 해방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영으로부터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든 결정적인 부족은 모든 장로들의 지속적인 기도이다. 장로들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이 부족하다. 우리가 주님의 내주하는 임재의 빛 비춤 아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대해, 교회에 대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참된 이해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다. 장로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합당한 장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이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정상적인 본을 세워야 한다. ...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 그분을 앙망하면서 이것을 실행하자.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1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7장, 109-111, 113-11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1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7장; 신약의 인도 직분과 사도들의 가르침, 2장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쪽

2/11 주일

아침의 누림

사 56:7

7 내가 내 거룩한 산으로 오게 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뻐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 제단 위에서 기쁘게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마 21:22

22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요일 5:14-15

14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갖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며 청한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도 압니다.

행 12:5, 12

5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12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계 8:3-4

3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찬송: 786 (英) 기도로써 주 위해 (中:569)

1 기도로써 주 위해 길을 예비하겠네
기도-로써 주 밀며 주에 의해 밀리리.

2 주 뜻 목적 따라서 기도로써 수고해
축복- 넘치기까지 주와 함께 연합해.

3 자기 야심 버리고 기도로써 수고해
자기- 뜻을 거절해 주 뜻만을 관심해.

4 기도로써 수고해 주가 시작하게 해
주의- 모든 계획을 주가 집행하게 해.

5 큰 바퀴 돌기까지 기도로써 수고해
교회- 따라가도록 주와 함께 기도해.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The All-inclusive Christ, chs. 13-14